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 회개와 천국 (마 4:12-17)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복음의 첫 번째 사역지로 정하시고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친 바 있습니다. 회개와 천국,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성경적 개념입니다.

### 1. 회개하라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고치다, 달리하다라는 ‘메타’와 깨닫다라는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단어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눅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로 회개를 설명해 주십니다. 눅 15:17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집나갔던 아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회개를 혼동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통렬한 후회나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종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범한 다윗은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 2.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의 거처가 다 예비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준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다가올 미래적인 나라이며 또한 늘 우리 가운데 있는 현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까이는 헬라어로 ‘엔기켄’인데, 이것은 도착했다는 의미로 시간적인 의미보다 거리적인 의미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 “Kingdom of God is at hand” 라는 매우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매일 지은 바 죄를 회개 하심으로,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시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능력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Repentance and the Kingdom of Heaven (Matt 4:12-17)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decided Galilee to be the first place to receive the Gospel and, to reveal,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Repentance and the kingdom of heaven were the first words of Jesus’ teaching. John the Baptist had preached a message like this in the desert. The words, repentance and the kingdom of heaven are of great biblical importance, being two pillars in living our life of faith.

### 1. Repent!

The word repent in Greek refers to ‘metanoeo’ which is a compound word of ‘meta’ meaning ‘to repair’ or ‘to differ’ and ‘noeo’ meaning ‘to realize’. Therefore, repentance means that one realizes his sin and repairs his mind and thought.

It is not easy to explain the concept of ‘repentance’ in words. That’s why Jesus explains it through the figure of the prodigal son in Luke 15. The phrase ‘came to senses’ appears in Luke 15:17. This is the very word of ‘metanoeo’. The fact that the son left his home, realized that he was a sinner, and then confessed and came back to his father, teaches what repentance is in the Bible.

Many people confuse regret with repentance. Iscariot Judas who had sold Jesus regretted once. But repentance as revealed in the Bible does not mean a sharp regret or sense of guilt.

David who had taken the wife of Uriah, the loyal servant and committed a crime of murder to conceal the fact, regretted his mistake by flooding his bed with weeping, drenching it with tears. But this regret was not that he did. He came to the Lord, confessed his own guilt, and entreated God’s mercy to recover the joy of salvation. Then, in retrospect, he lived his new life. This is real repentance.

### 2.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Jesus says in John 14,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with me so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Like this, the kingdom of God has a futuristic concept.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that is to say, the kingdom of God that is prepared by Jesus Christ has not yet fully and completely come to us. It also has a modern concept of being in the midst of us.

When Jesus sai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the word ‘near’, ‘engiken’ in Greek refers to the meaning of ‘arrived’ in terms of distance more than time. There is a very good expression in the English translation, “Kingdom of God is at hand”. In other words, the kingdom of God is very close, within striking distance of the hand. This kingdom of God indicates Jesus Himself. The kingdom of God in the Bible means the time and space in which God’s sovereignty and works are completed.

### My beloved Christians!

Because of many sinful acts, we do not go to hell, but because of un-repentance we go to hell. It is not because of many sinful acts that we cannot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If we don’t repent our sins, we are not able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Jesus, the kingdom of heaven, and His work.

All of us must repent our sins that we have committed every day. By enjoying the forgiveness of sins, possessing the kingdom of heaven, and enjoying the power of the kingdom of God,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the blessed people of God.

# 2012 2/4분기, 섬김위원 추가임명

우리교회는 2012년 2/4분기 각 위원회별 섬김위원들을 추가 임명하였다. 임명받은 자들은 올 한해 하나

님 앞에서 충성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찬양위원회(21명)

- 가브리엘 찬양대 (2명) : 김운정9 지재엽
- 할렐루야 찬양대 (6명) : 권명희 김희수2 박현미 류명열 임천식 정인석
- 임마누엘 찬양대 (2명) : 갈수록행복 남지혜
- 베들레헴 찬양대 (3명) : 권장환 김철수 박태진2
- 호산나 찬양대 (2명) : 조경숙 송종순
- 시온 찬양대 (4명) : 이실비아 김희수2 남경혜 최춘숙
- 아멘 관현악단 (1명) : 이주혁
- 갈렐 찬양대 (1명) : 장미란

### 교육위원회(3명)

- 유치부 : 김문범
- 중등부 : 정동인 황정애

### 재정위원회(2명)

- 계수 3부 김희석 원용규

### 교구위원회(13명)

- 등록새가족 환영팀 : 안경옥 김운숙
- 1-25 다락방장 김화정 부다락방장 이영미
- 1-13 부다락방장 조선임
- 2-7 다락방장 선혜영
- 9-5 다락방장 황노전
- 9-8 부다락방장 김정순3
- 9-14 다락방장 전하미 부다락방장 김명순2
- 13-23 부다락방장 이금순1
- 13-36 다락방장 김은주5 부다락방장 김연희1

## 2012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마5:13-16, 겠2:11-12)**

2012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는 7월 13일(금) 영어예배부를 시작으로 계속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습을 얻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012년 7.27(금)~29(주일)	서울교회	세상을 한하게 반짝아이! 정-정-	최인애 전도사
유치부			나는 반짝 아이예요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나의 삶이 수개 영광!	김민성 목사
초등부			FOR GOD!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7.26(목)~28(토)	아가페타운	나를 보내소서! 복음 전하는자의 삶을 축복하소서!	노경호 목사
고등부	7.26(목)~28(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이종진 목사
사랑부	7.14(토)~15(주일)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아자 아자! 소금처럼, 아자 아자! 방처럼	한상은 목사
대학부	7.18(수)~21(토)	아가페타운	ONE THING	박노철 목사 허승일 전도사
청년1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부르심	박노철 목사 박진아 목사
청년2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KNOWING GOD	박노철 목사 오세광 목사
디아스포라	8.2(목)~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박광일 목사
에바다	7.31(화)~8.1(수)	아가페타운	세상의 빛과 소금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8.14(화)~15(수)	아가페타운	빛과 소금인 가정	한상은 목사

## 장년부 성경공부 개강

### 7월15일(주일), 1부 예배후 본당 -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강의

그 동안의 방학을 마치고 장년부 성경공부가 7월 15일 2학기 개강을 한다.

지난 1학기에는 매주 약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 김철홍 목사의 지도로 바울서신 서론과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였다. 성경공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삶의 지침이 되었음을 많은 성도들께서 고백하였다.

2학기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립보서를 공부할 예정이다. 장년부 성경공부는 1부 예배 후 2층 본당에서 있으니 많은 성도들이 참석 바란다.

## 에스더 여전도회 특강

### 7월11일(수) 월례회 후

에스더 여전도회는 오는 수요일 7월 월례회 후 1시 30분 에스더 여전도회 후원교회인 주은농교회(농야교회) 강주해 담임 목사의 간증 및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제하의 특강 시간을 가진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전임교역자 하계휴가

- 유문건 목사 : 6.27-7.3 (대행) 장석남 목사
- 정수길 목사 : 7.2-7.7 (대행) 황 광 목사
- 박진아 목사 : 7.2-7.7(대행) 박광일 목사
- 한상은 목사 : 7.30-8.4(대행) 서명철 목사
- 황 광 목사 : 7.30-8.4(대행) 정수길 목사
- 서명철 목사 : 8.6-8.11(대행) 한상은 목사
- 박광일 목사 : 8.6-8.11(대행) 배경애 전도사
- 배경애 전도사 : 8.14-8.16(대행) 박진아 목사
- 장석남 목사 : 8.20-8.25(대행) 유문건 목사
- 임규현 목사 : 8.20-8.25(대행) 한상은 목사
- 스티븐 마린노리치 목사 : 8.28-8.31 (대행) 서명철 목사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5]

(문 52)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지나갔던가요?

답) 민20:14-21에서는 에돔 왕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2:4-7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2:4에서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히브리어 oberim bigebul, pass through)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하신 후 히브리인에게는 그 영토를 정복하거나 체류하지 못하게 하시고 양식과 물은 사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그들이 에돔 땅을 밟으면 칼로 대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민20:21)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갔다' (신2:8)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 모압 국경에 있는 에돔의 동편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마도 에돔 정부의 양해아래 국경 내부를 지나간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신2:4) 사뭇 광야와 모압으로 가는 북쪽 길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전 이스라엘은 그 지방 주민으로부터 음식과 물을 이미 사 먹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 땅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수리아 사막지대의 거친 길을 따라 동쪽 국경지대인 에돔을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영토로 주신 세일산을 중대한 에돔을 침범치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점령치 않고 그곳을 지나면서 음식과 물을 사먹게 하셨습니다. 즉 침략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돔의 국경지대를 따라 지나갔기 때문에 민20장 말씀과 신2장 말씀은 둘 다 역사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상호 충돌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원로목사 운전기사 모집

이종운 원로목사님의 차량을 운전해주실 성도님을 찾고 있다. 세례교인으로 40-50세 중반의 남자 성도로 사무국에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교인증명서, 신앙고백서, 담임목사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English Ministry Retreat

# Coming Together and Crying Out

Rev. Steven Martinol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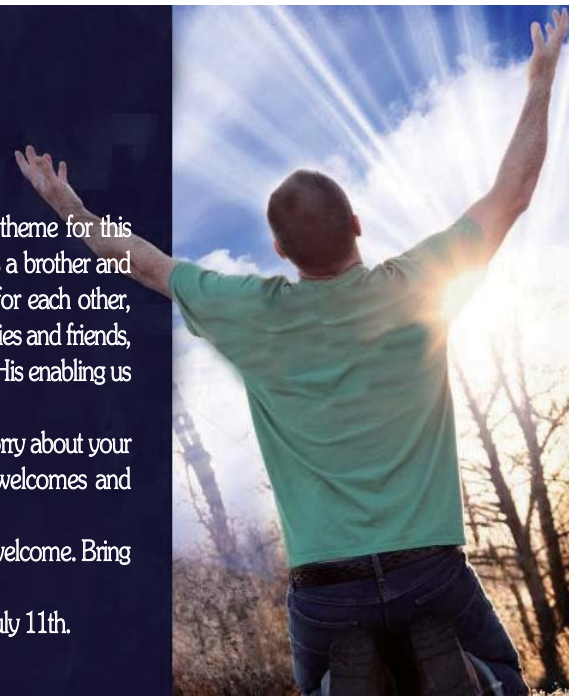
I would like to personally invite you to attend our summer 2012 English Ministry Retreat. The theme for this retreat is 'Coming Together and Crying Out'. Coming together as a Church, as a body of Christ, as a brother and sister, we will worship our almighty God, and cry out together to Him. We will spend time praying for each other, revealing our intimate prayers, hopes, visions, and dreams. And we will also ask together, for our families and friends, for ourselves, for our future in loving and serving Him. We will ask God for His anointing, His gifting, His enabling us in every area of our lives so we can truly grow in our faith and witness of Him.

Our retreat time is always filled with fun activities, as well as time to relax and rest. Please do not worry about your age, your English ability, your familiarity with other Church members, for our English Ministry welcomes and promotes a free atmosphere making everyone feel at home and at peace.

We will leave July 13th, at 9:30am and return home July 14th, at 2:00pm. Entire families are very welcome. Bring your kids, and we will all have a blessed time together.

Please contact Jang Kweong-Won Jipsanim to register. The registration deadline in Wednesday, July 11th.

Cell: 010-3278-2048, e-mail: simon\_jang@hotmail.com



## 여름수련회 초대이글 - 사랑부

이승우 집사(사랑부 부장)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랑부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합하여 말과 행동은 어눌하지만, 영혼만은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2012년 7월 14~15일 서울교회와 아가페 타운에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는 '아자아자, 소금처럼! 아자아자, 빛처럼!'을 주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으로 헌상은 목사님과 젊고 열정 있는 선

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재미있는 게임, 율동 등을 함께함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친구와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학부형이 함께하는 생명 살리기 행사인 화분 만들기와 풍성한 만나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온 교회가 예수님의 자기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뉘아가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자아자, 소금처럼! 아자아자, 빛처럼!' 사랑부를 위해 늘 아낌없이 후원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 내가 만난 서울교회



김정의 성도  
(9교구, 찬양예배 오르가니스트)

교회에 등록을 하는 날 교회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 다. 마리아 여전도회 모임을 알려주시는 전화, 다락방 모임을 알려주시는 다락방 권사님의 전화,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전화를 한 날에 다 받았습니 다. 저는 제일 먼저 새가족 교육이 있다는 6층을 향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 다. 모태신앙인으로 평생 예배 반주자로 살아온 나에게 어릴 적 배운 성경학교 수준의 기본적 성경적 지식인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은 매우 신선한 시간이었습니 다. 가르치시는 권사님이 약간 미안해 하시지만 사실 나는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 다. 담임목사님도 8주의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4주밖에 되지 않는 교육을 투정할 수 없었습니 다. 교회를 소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

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너무도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 다. 요즘은 새로 이사 간 양평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저렇게 전도해야겠구나 싶어서 마음먹고 열심히 배웠습니 다.

목사님 한 분과 세 분의 권사님의 심방을 받았습니 다. 집이 양평이라 먼 거리를 오셔야 하는 것이 죄송하거나와 교역자 가정인 우리집에 심방이란 참으로 생소한 일이며 동시에 감격할 일이었습니 다. 30년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였는데, 항상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잘 짜여진 교회를,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 여전도회에 참석하고자 수요예배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 다. 미국에서는 수요예배가 저녁에만 있는데, 낮에 드리는 수요예배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 다. 그리고 여전도회의 모임도 무척 재미있습니 다. 기도제목이 거의 같고,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정말로 비슷하여 피차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

습니 다. 베델하우스로 다락방 모임도 갔습니 다. 남양주 진접에서 오신 분들, 구리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나 같이 양평에서 온 분들. 이렇게 제각기 멀리서도 다락방 모임을 사모하여 오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 이영희 권사님이 이끄시는 성경공부 시간과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은 너무도 귀했습니 다. 더구나 권사님께서 베풀어주신 후한 점심은 기쁨의 절정이었습니 다.

이제, 본당이 있는 2,3층, 찬양연습실이 있는 5층, 새가족모임이 있는 6층, 맛있는 식사가 있는 8층, 장년성경공부가 있는 9층...작년에 몇 번의 수술 때문에 층계 오르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도 새로운 층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저는 오늘도 예배당 이곳저곳을 기웃거리 봅니다. 부디 이곳에서 나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지기를 바라며.....







도고팀 탐방 - 말라위

## 낙후된 땅 말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어제와 다르게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4.10. 김용진 선교사 선교보고 중)

말라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극빈국 중 하나로 국민의 65%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절반정도가 에이즈를 앓고 있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다. 이렇게 낙후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역을 하는 김용진 선교사는 최근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팽창해 영적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며,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역을 몸소 행하고 있다.

말라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말라위 도고팀'은 매주 주일 3시 10분 606호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말라위 도고팀원들은 '김용진 선교사님의 선교보고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다 들어주고 계심을 경험케 된다'고 말했다. 지난 달 말라위 첫 여성 대통령(조이스 반다)이 세워짐에 따라 도고팀에선 말라위 사회지도층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있었다. 문분순 집사(도고팀장)는 "실제로 선교현지에 가기는 어렵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

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곳이 선교사를 위한 도고라 생각된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라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용진·황경혜 선교사가 오직 주의 은혜로 복음사역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 사랑의 곡식운동 사역을 통해 재소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굶주림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십시오
- 교도소 재소자들이 새벽예배를 통해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출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소서
- 진료소 사역을 통해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 5개의 초등학교 5,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마칸다 교회를 통해 선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선교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가정에 평안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 에바다부 - 홈커밍데이를 은혜중에 마치고

## 농인 복음 사역의 진원지, 에바다부

### 이상애 성도 (에바다부)

에바다부에서는 홈커밍데이를 한 달 정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빨리 D-Day가 지나갔으면 하는 맘 이었습니다. 연락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부족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에바다부는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홈커밍데이 날! 역대 부장님, 부감님들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 에바다부 독립예배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홈커밍데이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

사드립니다. 주일 임규현 목사님의 수화설교가 기다려지면서 저희 농아인들은 스스로 더 친구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매주마다 거의 새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하고 장기결석자를 연락해서 오게 하면서 올해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일들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실감하며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작은 섬김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임규현 목사

따뜻한 사랑으로 기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개 숙입니다. 농인 복음 사역의 진원지로 귀하게 쓰임받는 에바다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8일(주) 두레교회 주일(1,2,3부)예배 설교를 한다. 9일(월) 한국군선교연합회 업무보고를 받고 협의를 한다. 10일(화) 제4회 장로교의날 행사 격려사를 한다. 13일(금) 세계 선교사회의 선교사대회 특강을 한다.
- 신임 무지개회 회장으로 이순영 권사(이관규 장로 부인)가 선임되었다.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7.8) 이삭선교회(7.15)
- 금주의식사: 성경학 집사 이영숙 권사 가정 - 자녀결혼을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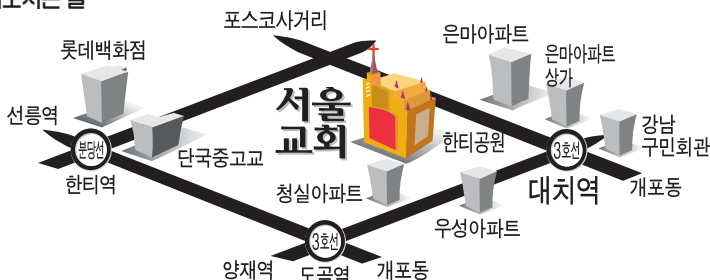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2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 우리 교회 다음세대들이 성령과 복음으로 재무장되는 기회가 되도록
2.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파송되는 단기선교팀 후원을 위한 바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함께 이뤄 가는 선교 되도록
3. 카자흐스탄 양재성 선교사님과 섬기시는 으뜻교회가 "교회등록"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지속적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